

대한결핵협회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결핵 완치를 장려하고자, 지난 해 결핵을 치료 중인 학생 환자에게 “행복나눔 지원비”를 지원키로 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원 목표 280명 중 최종적으로 203명이 행복나눔 지원비를 지원받았다.

2013년 학생 결핵환자

‘행복나눔 지원사업’ 통해 203명 지원

청소년 환자의 완치 지원을 통해 학교 보건 증진에 기여



‘행복나눔 지원사업’은 협회에서 실시하는, 중·고등학교 결핵검진 사업을 통해 결핵 의심자로 판명된 후 정밀 검사를 통해 최종 결핵환자로 확진, 치료 중인 학생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학생 결핵환자가 결핵 치료에 따른 심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학업에 매진하도록 돕기 위한 것. 나아가 6개월 이상 긴 치료 기간을 잘 극복하고 결핵을 완치함으로써 추가적인 학교 내 집단 발병을 원

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결핵퇴치사업의 일환이다. 또한, 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크리스마스 쉼 모금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주고 있는 만큼, 학생 결핵환자들에게 그 일부를 환원하기 위한 취지이며, 첫 해 시행한 행복나눔 지원사업은 1차년도 사업 실적 경과를 반영하여 더 많은 학생 환자들이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 2014년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2012년 결핵신고현황’ 통계에 따르면, 학생 결핵환자로 분류될 수 있는 10~19세 결핵환자가 2012년 기준 1천8백29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결핵신환자의 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협회 정근 회장은 “경제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결핵 때문에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행복나눔 지원사업과 함께 학생 결핵퇴치를 위한 추가 사업도 발굴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리나라가 결핵 퇴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결핵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협회는 금번 학생결핵 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결핵 관리의 물론, 국가 결핵관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원비 혜택을 받고자 하는 학생 결핵환자는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지원비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협회 각 시·도지부에 신청하면 지원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된다. †